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Economic Situ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olicy Implications



이 선우 인제대학교 교수

장애인가구의 2014년 월 평균 소득은 2011년에 비해서 13.5%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은 2011년 29.9%에서 31.1%로 1.2% 포인트 높아졌으며, 중위소득 40% 기준 상대빈곤율은 48.4%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뇌전증 장애와 정신장애의 상대빈곤율은 각각 78.6%, 69.8%로 2/3 이상의 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평균 16만4,200원으로 2011년보다 약간 더 늘어났다. 그러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4.1%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높이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입을 받음으로써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비장애 가구원도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낮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정책적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과 지출의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은 장애인가구의 경제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동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실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두 번째로 지출에서는, 비장애인가구와 달리 장애인가구는 일반적 지출 외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지출과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실태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관련하여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측면은 장애인가구의 소득이다.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24.9만원으로 2011년 198.2만원에 비해서 13.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2011년의 9.0% 포인트 증가에 비해서 다소 더 많이 늘었다.

장애인가구의 가구소득 분포를 100만원 미만은 28.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27.1%로 200만원 미만 가구소득이 전체 장애인가구의

55.3%로 절반을 넘었다.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18.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은 11.3%, 그리고 400만원 이상은 15.4%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의 비율은 뇌전증(간질)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 40.6%, 장루·요루장애(34.7%), 호흡기장애(32.1%) 등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들은 자폐성장애(41.7%), 심장장애(22.4%), 신장장애(17.0%), 간장애(16.8%), 안면장애(16.4%), 청각장애(16.3%) 등이었다. 장애유형 별로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면, 자폐성장애가 332.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심장장애 250.0만원, 안면장애 230.0만원, 지적장애 205.0만원 및 간장애 200.0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중위소득이 낮은 장

표 1. 월 평균 가구소득의 분포

(단위: %,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백만원 미만	29.3	26.4	28.9	30.8	20.1	15.6	-	40.6	23.0	26.3	32.1	10.5	12.9	34.7	46.5	28.2
1백~2백만원 미만	25.5	30.2	25.8	27.2	31.5	30.6	25.2	31.1	30.5	22.3	25.8	39.4	26.8	25.8	36.1	27.1
2백~3백만원 미만	17.5	20.4	17.3	17.3	16.8	22.2	17.7	14.3	19.7	16.3	20.8	23.9	30.5	25.8	1.5	18.1
3백~4백만원 미만	12.0	8.3	12.8	8.4	20.6	15.8	15.4	5.9	9.8	12.7	13.7	9.5	13.4	11.2	3.0	11.3
4백만원 이상	15.8	14.7	15.1	16.3	11.0	15.7	41.7	8.1	17.0	22.4	7.6	16.8	16.4	2.6	12.9	1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위소득	172.0	163.0	167.0	162.0	192.0	205.0	332.0	122.0	173.0	250.0	180.0	200.0	230.0	159.0	110.0	170.0
평균소득	223.9	224.3	223.3	219.7	238.9	256.8	367.4	168.6	246.7	258.7	204.1	249.9	229.3	179.6	164.1	224.9

표 2. 장애유형 별 장애인 가구주 비율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가구주	71.0	52.6	70.0	61.7	43.4	11.4	-	36.1	60.2	78.2	65.8	66.5	60.7	79.8	54.5	61.3
비가구주	29.0	47.6	30.0	38.3	56.6	88.6	100.0	63.9	39.8	21.8	34.2	33.5	39.3	20.2	45.5	3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들은 뇌전증(간질장애)(110.0만원), 정신장애(122.0만원), 장루·요루장애(159.0만원) 등이었고, 전체 장애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보다 54.9만원이 더 높은 224.9만원이었으며, 장애유형 별로는 중위소득의 순서와 유사하게 자폐성장애(367.4만원), 심장장애(258.7만원), 지적장애(256.8만원), 간장애(249.9만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유형들로는 뇌전증장애(164.1만원), 정신장애(168.6만원), 장루·요루장애(179.6만원)로 평균에 비해 45만원 이상 낮았으며, 호흡기장애(204.1만원), 청각장애(219.7만원)의 가구소득도 전체 장애인가구 평균 소득보다 낮

은 편이었다. 따라서 뇌전증(간질장애)을 비롯한 정신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은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 모두에서 전체 장애인가구보다 상당히 낮은 장애유형에 속했다.

이어서 장애인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비율을 보면,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는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폐성장애는 장애인 가구주 비율이 0%로 가구주가 비장애인인 경우 평균 가구소득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가구의 빈곤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절대빈곤선으로는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용하였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

표 3. 장애유형 별 절대빈곤율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빈곤	70.5	66.5	68.6	66.3	67.7	72.3	85.7	51.7	72.8	80.9	63.4	78.7	84.1	67.1	42.4	68.9
빈곤	29.5	33.5	31.4	33.7	32.3	27.7	14.3	48.3	27.2	19.1	36.6	21.3	15.9	32.9	57.6	3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장애유형 별 상대빈곤율(중위소득 40%)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빈곤	54.3	48.1	52.1	47.2	54.3	54.4	77.8	30.2	50.7	64.0	51.4	45.5	60.3	52.3	21.4	51.6
빈곤	45.7	51.9	47.9	52.8	45.7	45.6	22.2	69.8	49.3	36.0	48.6	54.5	39.7	47.7	78.6	4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에 빈곤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상대빈곤선으로 는 중위소득 40%¹⁾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소득²⁾이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에 빈곤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장애유형 별로 빈곤율을 비교하였는데, 전체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1.1%로 나타나 2011년의 29.9%에 비해 1.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절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빈곤율이 57.6%에 이르러 두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 48.3%, 호흡기장애 36.6%, 청각장애 33.7%, 뇌병변장애 33.5%, 장루·요루장애 32.9% 등으로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폐성장애의 절대빈곤율이 14.3%로 가장 낮았으며, 안면장애가 15.9%로 20% 이하의 빈곤율을 보였다.

중위소득 40%에 의한 상대빈곤율을 보면, 전체 장애인의 가구 빈곤율은 48.4%로, 절대빈곤율보다 17.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상대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뇌전증장애가 78.6%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 69.8%, 간장애 54.5%, 청각장애 52.8%, 뇌병변장애 51.9% 등으로 50%가 넘는 상대빈곤율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가구소득의 수입원별 비중을 보면, 전체 장애인가구에서 근로소득이 54.3%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사업소득 18.4%이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은 18.1%로 2011년의 13.8%에 비해 그 비중이 5.3% 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에 사적이전소득은 5.5%로 2011년의 6.7%에 비해 1.2% 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의 비중은 3.4%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장애는 자폐성장애(73.2%)이었으며, 사업소득의 비중은 안면장애(32.3%)가 가장 높았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뇌전증장애(32.9%)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신장애(30.8%), 장루·요루장애(29.8%), 호흡

1) 중위소득으로는 통계청이 2014년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인 2013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의 중앙값 3,137만원을 12로 나눈 월 평균 중위소득 261.4만원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사용하는데, 유럽에서는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중위소득의 40%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40%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2)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표 5. 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비중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근로소득	53.6	52.9	54.9	53.6	68.8	62.0	73.2	48.4	45.5	69.8	55.7	58.8	51.4	49.8	34.1	54.3
사업소득	21.2	12.4	17.3	16.4	11.3	17.2	19.0	12.6	21.9	8.2	7.8	18.2	32.3	6.0	25.5	18.5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	3.0	4.4	4.3	4.2	0.5	1.7	0.8	2.0	6.5	7.9	3.5	10.7	0.0	4.6	0.8	3.4
공적이전소득	16.4	22.6	18.7	19.0	15.6	16.4	6.1	30.8	21.0	10.3	25.9	8.8	8.3	29.8	32.9	18.1
사적이전소득	5.7	6.6	4.8	6.7	3.5	2.6	0.8	6.2	5.0	3.8	5.6	3.4	8.0	9.8	6.8	5.5
기타	0.2	1.2	0.1	0.0	0.3	0.1	0.0	0.0	0.1	0.0	1.5	0.0	0.0	0.1	0.0	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장애(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지출과 추가비용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전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172.1만원으로 2011년의 162.3만원에 비해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월 평균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294.1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지출보다 120만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간장애 239.6만원, 심장장애 212.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장애의 가구 지출은 133.7만원, 뇌전증장애 134.2만원 등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활비³⁾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관적 최저생활비는 월 평균 164.9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1

표 6. 장애유형 별 가구 월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월 지출	168.9	180.5	167.7	166.1	177.7	194.7	294.1	133.7	195.9	212.5	161.4	239.6	182.2	155.4	134.2	172.1

3)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사용한 항목의 내용은 “가족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최소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로 되어 있다. 이는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는 면에서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통해 주관적 빈곤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 참조. 김미곤 외 (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 장애유형 별 월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평균 금액	162.7	173.2	160.3	154.2	178.5	190.1	273.9	133.1	178.6	229.7	146.6	210.6	156.9	144.2	135.6	164.9

년의 154.0만원에 비해 7.1% 늘어난 금액이다. 장애유형 별로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비교해 보면, 자폐성장애(273.9)만원, 심장장애(229.7만원), 간장애(210.6만원), 지적장애(190.1만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133.1만원), 뇌전증장애(135.6만원), 장루·요루장애(144.2만원), 호흡기장애(146.6만원) 등이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월 평균 지출액과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빈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월 평균 지출액이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크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월 평균 지출액이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작으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주관적 빈곤이라고 보고, 주관적 빈곤율을 장애유형 별로

비교하였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빈곤율은 25.1%로 2011년의 23.1%에 비해 2.0% 포인트 높아졌으며, 최저생계비에 의한 빈곤율 31.1%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주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간장애로 52.4%이었으며, 심장장애 34.4%, 뇌전증장애 34.2%, 정신장애 33.3%, 장루·요루장애 31.0%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월 평균 지출액을 가구소득과 비교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적자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월 평균 지출액이 가구소득보다 더 많으면 적자가구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월 평균 지출액이 가구소득보다 더 적으면 흑자가구에 해당이 된다. 적자가구는 저축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해당 가구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 8. 장애유형 별 주관적 빈곤율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빈곤	74.9	74.7	77.3	75.8	71.3	76.8	73.3	66.7	80.0	65.6	74.3	47.6	100.0	69.0	65.8	74.9
빈곤	25.1	25.3	22.7	24.2	28.7	23.2	26.7	33.3	20.0	34.4	25.7	52.4	-	31.0	34.2	2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장애인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7.3%로 2011년의 10.6%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하여 경제상황이 약간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 별로 적자가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뇌전증 장애와 간장애가 각각 23.1%, 22.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뇌병변장애가 11.6%, 신장장애가 11.5%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뇌전증장애와 간장애는 10 가구 중 2 가구,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는 10 가구 중 1 가구가 매달 적자를 보이는 가구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가구의 경제 상태를 악화시켜서 빈곤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살펴보았는데, 장애인 중에서 지난 1년간

표 9. 장애유형 별 적자가구의 비율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흑자	93.6	88.4	92.9	92.1	96.3	94.3	95.4	94.0	88.5	96.4	93.9	77.7	100.0	94.0	76.9	92.7
적자	6.4	11.6	7.1	7.9	3.7	5.7	4.6	6.0	11.5	3.6	6.1	22.3		6.0	23.1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5.3%로 나타나 2008년 68.5%, 2011년 72.0%로 지속적 상승을 보인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4,200원으로 2011년의 16만700원보다 3,500원 증가하였다. 항목 별 추가비용을 보면, 의료비가 66.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 25.6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18.9천원, 보호·간병인비가 13.6천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에 비해 교통비 추가비용은 증가한 반면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는 줄어들어 교통비가 추가 소요비용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교통비 추가비용의 증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감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보조기구

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자폐성장애(41만 8,100원), 심장장애(35만700원), 안면장애(32만 3,900원), 신장장애(30만3,300원), 뇌병변장애(28만3,100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장애의 경우, 의료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았으나, 자폐성장애는 보육·교육비, 재활기관이용료, 교통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았다. 또한 장루·요루장애와 뇌병변장애는 보호·간병인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부모 사후 대비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았다.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가구 월 평균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안면장애와 장루·요루장애는 각각 17.8%,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구의 가계

에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장장애(16.5%), 호흡기장애(15.8%), 뇌병변장애(15.7%), 신장장애(15.5%) 등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4.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주요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는 공적 연금 중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표 10.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교통비	28.8	30.3	17.0	9.0	21.5	32.9	79.2	15.4	51.9	37.8	34.6	32.5	19.2	26.0	35.7	25.6
의료비	56.9	138.6	26.8	11.7	54.2	47.1	22.7	66.3	218.2	276.3	172.3	221.2	288.9	86.3	98.6	66.0
보육·교육비	0.1	4.9	0.3	0.2	7.3	32.5	154.6	0.8	0.0	3.0	0.0	0.0	0.0	0.0	0.2	4.1
보호·간병인	8.8	51.7	6.1	2.8	0.5	10.2	30.2	1.7	7.8	6.0	10.4	0.0	0.0	69.2	3.0	13.6
재활기관이용료	0.9	13.1	0.3	0.8	1.1	20.4	80.3	1.0	0.0	0.8	0.0	0.0	0.0	0.0	7.2	4.2
통신비	2.9	4.7	27.1	24.0	18.9	9.8	9.2	1.6	3.5	1.5	1.1	2.7	15.7	1.3	3.7	9.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5.0	11.2	12.5	59.1	25.4	0.7	0.0	0.0	8.9	23.9	18.2	1.2	0.0	84.0	7.8	18.9
부모 사후 대비비	20.3	10.4	12.0	11.8	13.6	39.5	41.3	11.6	9.0	1.5	12.3	13.4	0.0	1.0	12.2	16.8
기타	3.6	18.2	2.2	1.1	1.2	4.6	0.6	5.3	4.0	0.0	5.7	0.5	0.0	1.1	7.1	5.1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164.2
가구지출 중 비중	8.1	15.7	6.2	7.3	8.1	10.2	14.2	7.8	15.5	16.5	15.8	11.3	17.8	17.3	13.1	9.5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장애인도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전환되는데,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기초연금도 고려해야 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의 연금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34.1%로 2011년의 32.9%에 비해 1.2% 포인트,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2.0%로 2011년의 1.4%에 비해 0.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보훈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1.9%로 2011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3.8%로 2011년의 3.2%에 비해 0.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장애는 간장애(48.2%), 장루·

요루장애(42.3%), 지체장애(40.3%), 신장장애(37.4%), 시각장애(37.1%) 등이었다. 공무원연금 가입율이 높은 장애는 간장애(5.1%), 장루·요루장애(4.3%), 시각장애(3.7%) 등이었으며, 보훈연금 가입율이 높은 장애는 호흡기장애(5.5%), 신장장애(3.7%), 뇌병변장애(3.1%) 등이었다. 개인연금 가입율이 높은 장애는 심장장애(8.2%), 신장장애(5.2%), 호흡기장애(4.8%), 지체장애(4.7%), 자

폐성장애(4.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장애연금(국민연금)을 받는 장애인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7%에 불과하며, 장애 유형 별로는 신장장애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뇌병변장애 3.2%, 호흡기장애 2.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는 수급자가 전혀 없고,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는 수급자의 비율

표 11. 연금 가입률과 가입 연금의 종류

(단위: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국민연금	40.3	28.2	37.1	30.4	33.7	14.7	4.5	9.9	37.4	29.0	29.7	48.2	28.5	42.3	9.9	34.1
공무원연금	2.2	2.0	3.7	2.0	-	-	-	-	1.6	-	1.4	5.1	-	4.3	-	2.0
사학연금	0.5	0.6	0.6	0.2	-	-	-	-	-	-	-	-	-	-	-	0.4
군인연금	0.3	0.1	0.5	0.4	1.7	-	-	-	0.6	-	-	-	-	-	-	0.3
보훈연금	1.7	3.1	2.4	1.6	2.7	0.4	-	1.5	3.7	-	5.5	1.6	-	1.8	-	1.9
개인연금(사적)	4.7	2.9	3.7	2.0	-	2.3	4.6	0.9	5.2	8.2	4.8	2.6	-	3.2	-	3.8

이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 수급가구의 평균 연금액을 보면, 28.9만원이었으며, 장애유형 별로는 호흡기장애가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장애 41.8만원, 뇌병변장애 35.8, 시각장애 30.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비수급가구가 84.2%, 수급가구⁴⁾가 15.8%로, 2011년의 17.0%에 비해 1.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절대빈

곤가구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가구소득만으로는 빈곤가구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전체 장애인가구의 15.3%로, 2011년의 12.9%에 비해 2.4%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장애유형 별로는 뇌전증장애의 수급가구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신장애(54.4%), 지적장애(26.6%), 호흡기장애(23.4%), 장루·요루장애(20.3%) 등의 수급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가구가 받는 평균 급여액은 41.5

4)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표 12. 장애유형 별 장애연금 수급 여부 및 평균 급여액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수급자	98.4	96.8	98.5	99.4	97.4	99.4	100.0	98.5	95.0	100.0	97.9	98.4	100.0	100.0	100.0	98.3
수급자	1.6	3.2	1.5	0.6	2.6	0.6		1.5	5.0		2.1	1.6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9.1	35.8	30.9	4.3	41.8	4.3	-	12.9	28.2	-	50.0	28.0	-	-	-	28.9

만원으로 2011년의 41.3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장애유형 별로는 자폐성장애의 급여액이 78.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안면장애(50.0만원), 장루·요루장애(48.9만원), 정신장애와 청각장애(46.4만원), 뇌전증장애(46.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⁵⁾의 수급률을 보면, 전체 장애인의 26.4%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의 24.8%에 비해 1.6% 포인트가 상승하였다. 또한, 기초보장급여 수급자에 비해 수급률이 10.6% 포인트 높아서 차상위계층 또

한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 별로는 뇌전증장애의 수급률이 6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신장애(64.8%), 지적장애(54.5%), 신장장애(42.8%), 자폐성장애(39.1%), 호흡기장애(35.9%), 뇌병변장애(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을 보면, 전체 평균은 14.8만원으로 2011년의 7.4만원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는 지적장애가 2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22.7만원, 언어장애 18.6만원,

표 13. 장애유형 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평균 급여액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수급자	87.8	83.5	86.1	88.3	86.9	73.4	91.3	45.6	83.9	97.9	76.6	84.0	87.1	79.7	38.5	84.2
수급자	12.2	16.5	13.9	11.7	13.1	26.6	8.7	54.4	16.1	2.1	23.4	16.0	12.9	20.3	61.5	1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7.5	44.5	39.6	46.4	26.7	44.8	78.3	46.4	41.2	22.0	33.1	11.4	50.0	48.9	46.3	41.5

5)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나누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표 14. 장애유형 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 여부 및 평균 급여액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수급자	82.0	67.4	75.8	76.2	77.0	45.5	60.9	35.2	57.2	96.1	64.1	78.7	70.2	78.6	31.4	73.6
수급자	18.0	32.6	24.2	23.8	23.0	54.5	39.1	64.8	42.8	3.9	35.9	21.3	29.8	21.4	68.6	2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9.4	15.4	16.4	17.9	18.6	23.7	22.7	14.3	18.0	3.0	12.6	6.4	16.3	3.2	10.1	14.8

청각장애 17.9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장애인가구는 전체 장애인가구의 40.6%로 장애인연금/수당 수급 장애인가구보다 14.2%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는 청각장애(54.0%), 호흡기 장애(50.7%), 장루·요루장애(49.1%), 뇌병변장애(48.8%) 등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 장애인의 평균 급여액을 보면, 전체 평균은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는 심장장애(17.8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 장애(17.7만원), 장루·요루장애(16.7만원), 뇌전증장애(16.6만원), 청각장애(16.2)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나가는 글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 가구는 26.4%로 전체 장애인의 1/4를 넘었으며, 장애인연금/수당의 급여액도 두 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31.1%로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는 전체 장애인가구의 1/3에 가까운 실정이며, 3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은 48.4%로 거의 50%에 이르

표 15. 장애유형 별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평균 급여액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수급자	60.6	51.2	57.1	46.0	60.9	75.7	83.3	67.5	66.2	65.7	49.3	91.2	63.1	50.9	74.8	59.4
수급자	39.4	48.8	42.9	54.0	39.1	24.3	16.7	32.5	33.8	34.3	50.7	8.8	36.9	49.1	25.2	4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5.4	14.8	15.5	16.2	11.3	2.8	0.0	2.7	13.1	17.8	17.7	8.4	6.2	16.7	16.6	14.4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빈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가입 상태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38.7%에 불과하여 노령기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중에서 상당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결국 장애인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넘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장

애등급 1~2급)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함께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소득보전의 기능을 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부가급여는 월 2~8만원(만 18세 이상~65세 미만)에 불과하여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6만 4,2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장애등급 3~6급)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 불과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은 커녕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대상자를 현재의 최빈곤층에서 더 확대하고, 특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